

# 4·3예술의 가치 이어갈 디딤돌을 놓다

### 새로운 30년의 시작... 서른한 번째 4·3미술제 개막 예술공간 이아·산지천갤러리에서 이달 30일까지

“나는 제주4·3의 증인자다. “나는 아홉 살부터 어른이었다. “배우고 싶었다”, “사랑받던 막내딸이다” 연미 작가가 올해 ‘4·3미술제’에 출품한 작품제목이기도 한 이 글은 4·3의 피해자, 증언자로 호명되어온 삼촌들이 스스로를 소개하고 싶은 자신에 대해 써내려간 이야기이다.

이상홍 작가는 “꽃으로 피어나지 못하고 별이 돼버린 당신을 상상”하며, 김호훈 작가는 “이제는 같이 기억하지 않으면 왜곡과 폄훼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며 각자의 방법으로 ‘4·3’을 풀어나간다.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원도십에 위치

한 예술공간 이아와 산지천갤러리에서 강동균, 강문석, 고경화, 고길천, 고승욱, 고혁진 등 46명(팀)의 작가들이 채워낸 2024 4·3미술제 ‘붉은 불꽃처럼’의 막이 올랐다.

30년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30년의 첫걸음을 디딘 서른한 번째 ‘4·3미술제’다. 전시장에선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한 세대를 지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4·3예술의 세대전승을 위한 고민을 녹여내 눈길을 끈다.

주최 측은 앞으로 4·3미술 30년을 이끌며 4·3의 정신과 가치를 세상에 확산시킬 전승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에 주목하며 올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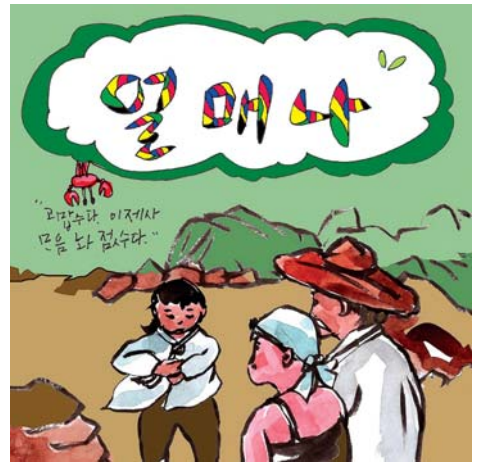
산지천갤러리 전시 모습.

내 청년작가 8명을 선정해 미술제를 함께하고 있다. 4·3예술의 가치를 이어가는 디딤돌이 될 ‘청년사삼정감’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청년작가들의 작품은 산지천갤러리

에서 만날 수 있다. 탐라미술인협회가 주최하고 4·3미술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이어진다. 월요일은 쉰다. 오로지

##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한판 <398>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또시 올 훈 말도 이신다. ‘좀 자당 배락 맞는다.’영 훈 속담이 여게. 으맹이가 감게기 못히지 아니훈 일을 당후연 어땡 흘 중 몰란 후여부난게. 경후난 후는 말이여게. 조상들이 얼매나 생각을 하여영 후여시민 올훈 말이 나오크냐? 시상이 이녁 무음냥 돈 안 웨난 느랑 맹심후행 후거난 경 알아사 웨느네.”

즈네 골았저, “에, 경 후큰게양. 으맹이가 생각 못후엇던 일이 감게기 일어나부난 하여영 겁나실 거우다. ‘좀 자당 배락 맞는 일.’ 옷게 나도 무음 잘 다스려사후 거 없수다.”

으맹이 골멘, “하르바님, 누님, 고맙수다. 이제사 무음 놆 졌수다. 송에기 목줄 매지 못 후여부난 하간 일이 일어난 나양, 하여영 겁나수다.”

### 제주어 풀이

- \*올 훈 말도 이신다 : 이러한 말도 있단다. \*좀 자당 : 잠 자다가.
- \*배락 맞는다 : 배락 맞는다. \*어땡 흘 중 몰란 : 어찌 할 줄 몰라서.
- \*후여부난게 : 하였기 때문에. \*경후난 후는 말이여게 : 그래서 하는 말이지.
- \*얼매나(얼매나) : <어찌>얼마나. \*하여영 후여시민 : 많이 하였으면.
- \*훈 말이 나오크냐? : 이러한 말이 나오겠느냐?
- \*시상이 이녁 무음냥 :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돈 안 웨난 : 다 안되니.
- \*느랑 맹심후행 후거난 : 늘 맹심하라고 한 것이니.
- \*경 알아사 웨느네 : 그렇게 알아야 된다. \*생각 못후엇던 : 생각 못했던.
- \*하여영 겁나실 거우다 : 많이 겁이 났을 거예요.
- \*무음 잘 다스려사 : 마음을 잘 다스려야. \*흘 거 없수다 : 할 것 같어요.
- \*이제사 무음 놆 졌수다 :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못 후여부난 : 못 해서.

고재만 화백

## 신문지 위 물방울... ‘현실과 이상’의 공존

###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문자의 발견’

김창열 화백은 1975년 피가로(Le Figaro) 지에 처음으로 물방울을 그린 후,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신문 위에 다양한 형태와 색채의 물방울을 그렸다.

물방울 그림에 배경으로 사용된 신문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캔버스이자 작가가 창조한 물방울의 표면이 되어 물방울에 환상성을 부여한다. 후백의 신문이 물방울의 그림자와 반사를 강조해 물방울을 더욱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신문이고 물방울은 작가가 그린 이상일 뿐”이다.

김창열 화백이 1980년대 후반 신문에 그린 물방울 작품들을 조망하며, 이후 그림의 조형 요소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문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진행 중이다. ‘문자의 발견:현



김창열 작가 작품.

실과 이상의 미학’이란 이름을 단 소장품 기획전이다.

이중후 제주도립미술관장은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에서 문자가 어떻게 시작되고, 작품에 사용됐는지 보여준다”고 이번 전시를 소개하며 “문자와 물방울의 관계 속에서 김창열 화백의 새로운 미학 세계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는 오는 7월 21일까지 이어진다.

오른지기사 eioh@ihalla.com

## 전통소품 바느질 워크숍 ‘아기맛이’ 운영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 ‘아기맛이’를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예술공간 이아 3층 창의교육실에서 진행한다.

‘아기맛이’는 올해 예술공간 이아의 도민 참여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예비 양육자 및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불 짓는 날’과 ‘전통 바

느질로 만드는 아기소품’이 운영된다.

두 프로그램은 운영시간 내(오전 10시~오후 4시)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당일 현장 참여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른지기사

## 앙리 마티스·라울 뒤편 특별전 7일 폐막 앞두고 관람료 할인

제주도립미술관은 오는 7일까지 열리는 명화 특별전 ‘앙리 마티스와 라울 뒤편: 색채의 여행자들’의 입장료를 폐막 전 마지막 3일 동안(5~7일) 할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 입장객은 관람료 50% 할인, 도민은 관람료 50% 할인과 추가 20% 할인이 적용된다. 아

트상품도 50~70% 할인(위탁 상품 제외)해 판매한다.

관람요금은 제주도립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티스와 뒤편의 삶과 작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 장소에서 관람하는 고품격 명화전인 이번 전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트북이자 마티스의 대표적인 ‘재즈(JAZZ)’ 원본을 비롯한 80여 점의 작품과 뒤편의 유화, 수채화, 드로잉, 판화, 아트북 등 18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오른지기사

## 전통예술의 멋과 흥 오롯이, 국악콘서트

사단법인 국악단 너나들이가 한국 전통예술의 멋과 흥을 펼쳐보인다.

오는 6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연장 BeIN:(비인)에서 국악콘서트 ‘탐라, 가무악의 향연’을 열고 관객과 함께 전통예술이 갖고 있는 보편적·사회적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고사덕담 비나리, 전통무용 곡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진쇠춤 살풀이,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판소리 춘향가의 눈대목 ‘갈까부다’를 비롯 서도·경기·남

도 지역별 소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한편 국악단 너나들이는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과 멋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국악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국악 공연을 통해 전통예술이 지닌 우수한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예술을 보존·전승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 전통 예술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객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통음악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른지기사

# 2024 제주인명록 발간

한리일보가 제작한 「2024 제주인명록」이 발간됐습니다. 「2019 제주인명록」 발간 이후 5년만입니다. 도내·외 인사 3000여명이 수록된 이번 인명록에는 2023년 11월말 기준 도내 주요기관·단체 인사는 물론 국내·외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제주인의 기개를 드높인 인사들의 현직 및 주요 경력 등이 정리됐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규 격 | 4X6배판 정 가 | 15만원  
입금계좌 | 농협 981-17-006824

**한리일보** 구입문의 : 064)750-2531